

중국문화론과 脫서구중심주의의 딜레마: '좌파-오리엔탈리즘'과 대안근대

조경란(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이제 우리에게 바깥은 없다. 제도와 관련하여 정치라는 외부, 역사와 관련하여 사건이라는 외부, 의견과 관련하여 진리라는 절대적인 외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는 언제나 그 안에 있다. 모순들은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폭발한다. 그리고 정치란 모순들을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들을 파열과 폭발의 지점까지 끌고 가기 위해 스스로를 모순들 가운데 위치시키는 일에 있다.”¹⁾

1. '서구중심주의 이후'의 근대, 그 상상의 조건

우리가 '보편주의'라고 할 때 기실 그것은 '유럽적 보편주의'라는 것, 자본주의는 이미 임계점을 지났다는 것, 이 모두는 우리가 서슴없이 동의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 “자본주의 또는 유럽중심주의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말이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언'에 동의한다는 것, 또 다른 대안을 구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안에 대한 구상은 언제나 필요하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절망적 상황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절망적 현실이 또 다시 설부른 대안을 허용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안을 떠올릴 수 없으면 없는 상태로 버티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서양의 좌파 지식인 중 적지 않은 이들이 향후 서양중심주의의 대안으로 중국문명을 꼽는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명론은 역설적이게도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 현실사회에 대한 리얼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것이 절차든 가치든 민주주의 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²⁾

여기서 대안과 관련하여 중국지식인의 주요 화두가 '부강중국'에서 '문명중국'으로 옮겨갔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의 신좌파같은 경우 1990년대 사회문제의 발생을 신자유주의 함정 때문이라고 하였다가 2000년대로 오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성장의 결과를 목도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문명요인에 주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일 중국의 발전을 신자유주의의 모델의 결과로 해석한다면 개혁 중에 출현한 각종 폐단을 '외원성'(外源性)으로 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중국의 경제적 굴기도 '자아의 타자화'의 기적으로 되어버리는 역설이 성립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왕후이(汪暉)와 간양(甘陽)이 중국의 현대성을 서방화의 보편서사로부터 이탈시켜 '중국요소'로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던

1) Daniel Bensaid, 「가설적 공산주의, 알랭 바디우의 '공산주의적 가설'에 관하여」, 부르노 보스틸스(염인수 옮김), 『공산주의의 현실성』, 갈무리, 2014, 46쪽에서 재인용

2) 1950-60년대 중국사회주의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대안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그 운영에서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않았던 점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안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해당사회가 건강하게 긴장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민주주의의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³⁾

그런데 중국 신좌파의 이런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일부 좌파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좌파 중 마틴 자크(Martin Jacques)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와 마크 레너드(Mark Leonard)의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등도 중국의 문명론자들처럼 중국의 부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서양과는 다를 것이라 예상한다. 프랑크(Andre Gunder Frank)도 『리오리엔트』에서 유럽의 근대가 그들 혼자가 아닌 중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부상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 외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도 중국의 경제적 성공 요인을 독자적인 아시아적 모델에서 찾는다. 아리기(Giovanni Arrighi)도 『베이징의 애덤스미스』에서 중국의 재부상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대신하여 체제 수준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 중국 문명론을 거론한다. 이들 중 심지어 중국의 경제성장도 중국 고유의 문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이들 서구좌파의 중국에 대한 낙관적 문명론이 ‘예측’이 아닌 분석과 탐색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 이들의 중국문명론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중국 내부 지식인들의 갑론을박 전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로 국가의 자본주의 성장지수와 신좌파의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상 이 때문에 가장 곤혹스런 결과는 이들이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할 때, 중국 굴기의 그늘진 측면 즉 지속적인 환경 파괴, 공산당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엄청난 빈부격차, 사회윤리의 붕괴 등 현재 중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지금의 중국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게 되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

서양의 일부 좌파지식인의 중국 굴기에 근거한 중국문명론은 그 안에 서구 근대의 대안적 요인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과도한 목적성이 내재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에게 본원적으로 학문적 분석과 탐색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들의 문명론 안에서 분석대상으로서의 현실의 중국은 존재할 수 없다. ‘중국의 중국화’로서만 현상한다. 이들에게는 기존의 오리엔탈리스트들처럼 다만 중국은 여전히 그곳(there)으로만 존재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구의 대안으로서의 중국에 관한 표상이지 중국의 현실이 아니다. 이들 문명론자들에게는 중국은 여전히 상상의 영역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이들은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에서는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이를 ‘좌파-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르려 한다. 따라서 좌파-오리엔탈리즘 안에서는 중국은 이상과 현실의 긴장으로 다가올 수 없다. 중국은 대안이여야 하기 때문이다.⁵⁾

중국의 신좌파는 이러한 좌파-오리엔탈리즘을 수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셀프 좌파-오리엔탈리즘’을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 서구좌파와 중국의 신좌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한다. 서구좌파들이 서구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중국문명론을 중국의 신좌파는 서구 근대성을 비판한다는 명목

3) 刘擎, 「中国语境下的自由主义: 潜力与困境」, 『開放時代』, 2013년 제4기

4) 줄저,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글항아리, 2013

5)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일본 전후 지식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또한 ‘좌파-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주체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다케우치의 욕망이 지배하는 한에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의 ‘중국’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줄고, 「냉전시기(1950-60년대) 일본 지식인의 중국 인식-다케우치 요시미의 중국관: 사상적 아포리아와 ‘좌파-오리엔탈리즘」, 『사회와 철학』 제28집 2014.10 참조

으로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전유하여 실체화한다. 좌파-오리엔탈리즘을 통한 이상화된 중국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의 프리즘을 통해 ‘회의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긍정과 자기 확인의 방법으로 전유되다보니 셀프좌파 오리엔탈리즘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기이한 형태의 비 성찰적 신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국모델론도 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비 성찰적 신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모델론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역시 근대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적이다. 어떻게 포장을 하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양 시기를 합친 60년의 사회주의 경험이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의 성공으로 귀결되었다는 주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중국모델론은 유럽인들이 근대세계에 부과하는 지적인 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립한다. 여기에는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다시 유럽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조금 비약하면 유럽을 문명과 진보에서 떼어내 버리고, 그 곳에 중국을 위치시키는 방식인 것이다.⁶⁾ 이러한 방식으로는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그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에 대해 근대극복이라는 세기적 명분을 떠나, 강약의 위치의 전도가 목적인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가장 문제인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정치를 상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구체적으로는 현재 중국내부와 서구좌파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국의 ‘문명담론’ 안에서 과연 서구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보편적 보편주의’의 창출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심이 있다. 만일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그 주원인을 서구좌파의 중국에 대한 ‘좌파-오리엔탈리즘’과 중국 신좌파의 자기중심적 전유에서 찾고, ‘서구중심주의 이후’의 근대를 좀더 근원적 차원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담론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이 글은 ‘보편적 보편주의’를 비롯하여 이후 논의 전개상에서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개념과 문제의식에 도움을 받아 전개할 것이다.

2. 좌파-오리엔탈리즘과 탈서구중심주의의 딜레마

임마뉴엘 월러스틴은 『유럽적 보편주의』에서 우리가 보편주의라 부르는 것이 실상은 ‘유럽적 보편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적 보편주의는 기실 서구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권력의 레토릭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극복대로서 잠정적으로 ‘보편적 보편주의’를 제시한다. 그는 기존의 세계체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서의 보편적 보편주의는, 그러나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을 선언하고 제도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⁷⁾ 일단 이 주장은 ‘이행의 시대’에 서구중심주의의 지식구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서구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15세기 말 유럽사회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즉 서구중심주의는 유럽의 식민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17-18세기 유럽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식민사업이 확대되면서 세계를 위계적 질서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더 강화되었다. 그 결과 근대 서구중심주의는 서구의 가치와 규범을 보편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타

6) 줄고, 「중국의 신좌파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왕후이, 『탈정치 시대의 정치』, 돌베개, 2014), 『창작과비평』 2014년 11월 겨울호 서평

7) 이매뉴얼 월러스틴(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 권력의 레토릭』, 창비, 2008, 10쪽

자에 부과해왔다. 계몽주의 또한 식민주의가 확산되면서 유럽의 지배적 위치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작용했다. 인종주의는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자기중심주의를 넘어 그것을 타자에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명과의 공존 질서를 허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하면 서구중심주의를 유지시키고 굳건하게 해온 것은 오리엔탈리즘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굳건한 언설(discourse)로서 몇세기 동안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해왔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18세기 말 이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위압적 권력이자 제도로 군림해왔다. 때문에 누구도 동양을 스스로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⁸⁾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해체될 것인가. 중국의 경제적 굴기는 동서양을 평등한 관계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지평을 마련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리엔탈리즘이 약화될 것인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중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은 쉽게 해체될 것 같지가 않다.

왜 그럴까. 물론 중국은 일단 경제성장과 규모면에서는 서구중심주의의 지식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 그리고 현재 중국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꿈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구중심주의는 경제와 규모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으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구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서구중심주의가 중국중심주의로 자리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몽론이든 중국모델론이든 그것이 의미있는 대안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구근대체제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국가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중국이라는 국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 서구중심주의가 중국중심주의로 이름만 바꾸는 강약의 위계질서의 전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동안 미국이 패권을 휘둘렀으니 이제 중국이 그 패권을 휘둘러 그것을 되갚아야 한다는 인식, 이런 인식으로는 지금 임계를 넘어선 글로벌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근본적인 해체는커녕 그 체제를 더 확산시키고 강화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서구중심주의 또는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이라는 과제 앞에서 우리는 좀 더 리얼하면서도 신중하게 그것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구중심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은 허위와 신화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만일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허위와 신화는 일거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리엔탈리즘은 “결국 1840년대 후반 에르네스트 르낭의 시대로부터 오늘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의 관념체계가 변함없이 가르쳐질 수 있는 지식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만큼,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 모음 이상으로 강력한 어떤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소재로 하는 유럽의 공상만화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 및 실천체제로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창조를 위하여 수 세대 동안 엄청난 물질적 투자가 행해졌다.”¹⁰⁾

이처럼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은 2세기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학문적 축적이 가능했던

8) 에드워드 사이드(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2, 15-16쪽 참조

9) 규모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대륙적 소화력’과 통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연장의 ‘가능성’으로 현상하지만, 그것은 똑같은 이유로 자본주의 종식에 있어서 ‘불가능성’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10) 에드워드 사이드(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2, 22-23쪽 참조

것은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서구중심주의는 하나의 담론이자 서구의 타 지역에 대한 억압체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권력으로 작용해온 방대한 지식체계라 할 수 있다.¹¹⁾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오리엔탈리즘이 단순히 서구세계를 규율하는 법칙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인 동아시아인을 막론하고 이미 우리 모두의 무의식의 저변 뼈 속 깊이까지 내재화된 가치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근대성찰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분석대상에서 유럽적 보편주의의 허구성만이 아니라 중국의 근현대 150년의 역사와 사회주의 역사 그리고 현존하는 국가도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중국모델론도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근원적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와중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근대의 문제점보다는 근대의 가치에 함몰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중국모델론에 붙어 있는 근대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모델론을 복수의 근대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에 더해, 서구의 근대와는 다른 더 우월한 근대라고 의심 없이 표명한다.

“중국문명은 서구문명과도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서구식 개념으로 중국문명과 중국의 근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와는 다른 개념과 이론, 보다 설득력있는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20세기와는 달리 지금은 문화가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수의 근대가 경쟁하는 시대에는 서구는 더 이상 근대를 독점할 수 없다. 더 이상 서구체제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며 선진화된 국가, 개발된 국가, 문명국가라는 말이 더 이상 서구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¹²⁾ 마틴 자크는 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북미와 유럽의 경험만을 토대로 근대의 개념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수의 근대는 유럽의 근대성을 보편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서구중심주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이데올로기의 작동 속에서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은 물론 사회주의의 외피를 쓴 중국 등 세계 도처에 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현존한다. 그러므로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지구화된 자본권력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¹³⁾ 아리프 딜릭도 복수의 근대성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유럽적 또는 미국적 근대성의 세계화에 따른 하나의 주제곡이 수반하는 변주곡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¹⁴⁾

가치의 내재화, 그리고 서구 근대와 동아시아의 근대를 구분이 불가능해진 상황 외에도 지금의 시점에서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이 작업을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굴기를 바탕으로 제1강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현실인식 그 자체이다. 중국문명을 근거로 들면서 중국은 세계 제1의 제국이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지배할 것이라는 여러 주장이 있다. 하지만 지구를 지배하려 했던 모든 거대한 제국의 중심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다. ‘우리’는 예외라고, 우리는 제국주의적이지 않고 예전 제국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만 미국 역시 베트남전이나 걸프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잘못을 되풀이했다.¹⁵⁾ 중국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 다른 여타의 자본주의 국가처럼 철옹성같은 자본주의와 협력관계에 있는 강한 국가가 버티고 있는 중국을 배경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1) 유재건, 「근대서구의 타자인식과 서구중심주의」, 『역사와 경계』 46, 2002

12) 마틴 자크(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부키, 2010, 153쪽, 196-197쪽

13) 김택현, 「유럽중심주의 비판을 다시 생각함」, 『서양사론』 제114호, 348-349쪽

14) 아리프 딜릭, 「탈중심화하기 : 세계들과 역사들」, 161쪽

15) 에드워드 사이드(김성곤 · 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00, 38쪽

3. 서구 좌파의 중국문명론과 좌파 오리엔탈리즘

류칭에 의하면 최근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책 중 하나는 한국에도 번역소개된 바 있는 마틴 자크(Martin)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다.¹⁶⁾ 여기서 자크가 절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주도역량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은 특수하여 서양이 상상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굴기는 ‘서방세계의 종결’(영국판 부제목)을 의미하고, ‘신지구질서의 탄생’(미국판 부제목)을 의미한다.

마틴 자크는 중국의 부상은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넘어 세계를 다르게 이끌어갈 것이라 전망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문명국가, 민족, 조공제도, 단일성이라는 서구와는 다른 중국의 역사이다.¹⁷⁾ 그는 또 근대 유럽의 국민국가가 등장한 이래 국제관계를 지배했던 베스트팔렌 체제가 만들어놓은 국민국가 체계가 21세기에는 바뀌어 동아시아의 조공제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전망한다. 그는 동아시아의 여타의 국가는 중국과의 사이에서 사이스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식민주주의나 신식민주주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조공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¹⁸⁾

사실 조공제도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의 당사국들과 서구 학자 사이에는 해석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아리기도 Cf. Weinong Gao의 연구를 인용하여 중국의 조공무역은 사실 경제적 이익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컸다....명목상 조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국(中國, the Middle Kingdom)으로 하여금 제후국의 충성을 ‘사고’ 동시에 제국의 넓게 퍼진 변경 전역에 사람과 상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의 거래였다고 평가한다.¹⁹⁾ 중화주의의 정치경제적 구현체라 할 조공체제는 단순하게 예교에 의한 관계만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 냉혹한 해게모니 투쟁의 현상이었다. 그리고 청대의 경우 느슨한 방목(放牧)적 치리(治理)가 가능했던 것은 관리 시스템의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힘의 원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강요한 질서를 관철할만한 충분한 근대적 무력을 가지지 못한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많은 경우 화와 이 간에 조공과 책봉 관계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조공하는 이에게는 국내의 권력기반 강화를, 책봉하는 이에게는 정치적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쌍방간의 합의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평등의식에서 비롯된 합의라기보다는 서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따라서 다소 기만적인 성격이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합의였다. 결코 비대칭적인 관계를 대등하게 인정하려는 윤리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를 ‘상황의 정당화체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마크 레너드도 2005년 이후 세계에는 적어도 세 개의 모델이 출현했으며 중국모델은 비서방국가들에게는 미국모델과 유럽모델보다 훨씬 흡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마크 레너드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최근 외부에서 들어온 사상으로 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의 관념대로 미래를 기획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간양의 유가사회주의 공화국을 예로 들면서 이것을 새로운 현대성 개념을 창조하는 일환으로 해석한다.²¹⁾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인권과

16) 劉擎, 「中國有多特殊?」, <http://www.aisixiang.com/data/65416.html>(2013. 8.5)

17) 마틴 자크(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부키, 2010, 28-29쪽 참조

18) 마틴 자크(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부키, 2010, 495-497쪽 참조

19) 조반니 아리기(강진아 옮김),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길, 2009, 447쪽

20) 甘陽, 「從第一次思想解放到第二次思想解放」, 『文明・國家・大學』, 三聯書店, 2012, 131쪽 참조

21) 마크 레너드,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돌베개, 2011, 39-40쪽 참조

자유의 프리즘으로 중국의 개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리고 서구로부터 변형된 형태의 중국형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모델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본다.²²⁾ 마크 레너드는 이러한 중국지식인들의 생각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레너드는 중국식 모델은 머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화될 것이다. 서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중국의 시도는 새로운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 이 대안은 세계의 다른 나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서구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단언한다.²³⁾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근대가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었음을 밝히고²⁴⁾ 이를 통해 서구의 근대적 도약에 내적 필연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최근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²⁵⁾ 프랑크의 경우 『리오리엔트』에서 전근대 세계에서 유럽의 위상을 과대평가하고 그에 근거해 근대사를 서구문명의 확산과정으로 독해하는 견해에 대해 비판한다. 그간 어둡게 덧칠해 만들어진 아시아 상에서 그 덧칠을 벗겨내고 원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서구중심주의 역사상의 극복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리기는 프랑크의 연구에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그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비판한다. 유재건이 지적하고 있듯이 프랑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 개념을 폐기함으로써 그의 역사적 전망은 과거 경제발전의 경험으로 아시아의 재 부활은 가능한 일이라는 동아시아의 재부상이라는 근대주의에 철저히 갇혀 있다.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나타나는 그의 반서구중심주의는 세계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성장지상주의에 근거한 중국중심주의로 귀결된다. 결국 이는 중국이 맡은 자본주의의 연장이라는 역할을 찬양하는 꼴이다. 즉 근대성이라는 열망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위계만을 전도시키는 방식인 것이다. 결국 근대성은 유럽만이 아니라 다수문명의 공통된 열망이었다는 전제 하에 유럽의 침입이 없었다면 먼저 근대를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유럽인보다 먼저 근대를 먼저 이룩했다는 것이고 유럽은 다만 19세기에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유럽은 대부분의 시대에 주변부 지역에 처해있었다는 것이다.²⁶⁾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서구좌파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옥시덴탈리즘으로 또는 반 유럽적 유럽중심주의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의 분신이며 ‘좌파-오리엔탈리즘’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매우 환영받는 지식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중국에 대한 사유는 많은 부분 중국의 신좌파의 중국에 대한 해석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중국정부로부터도 환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중국정부가 하고 싶은 또는 듣고 싶은 이야기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 서구좌파들이 중국에 대해 어떤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중국이 서양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많은 부분 대안근대를 의식한 예측일 뿐, 학문적 분석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그 전망 안에는 서구사회에 대한 비판의 맥락과 그 연장선상에서 대안이 중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이 들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희망 안에는 다분히 자기목적적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

22) 마크 레너드, 103쪽

23) 마크 레너드, 202쪽

24) 유재건, 「근대 서구의 타자 인식과 서구중심주의」, 『역사와 경계』 46, 42쪽, 유럽중심의 세계상 안에서 근대는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럽내부의 결과로 인식되었다. 근대성이 서구의 내부에서 자라나 전지구적으로 전파된다는 확산이론(diffusionism)으로 자리 잡았다.

25) 유재건,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성」, 『한국민족문화』 32, 2003, 346쪽, 호지슨, 프랑크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26) 이매뉴얼 윌러스틴(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 권력의 레토릭』, 창비, 2008, 86-87쪽 참조

하지만 자기사회의 현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연구를 ‘자국의 문제(학문)’를 ‘해결’ 또는 ‘풍부히 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하는, 어찌보면 공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적지 않은 도덕적, 실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연구자의 목적성과 계획성의 구도 안에서 왜곡될 소지를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국가에서는 진보적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중국에 대한 이론적 개입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긴장이 내포되지 않은 대안은 이들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된다. 즉 결과적으로 중국 ‘사회주의’ 정권의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으로 전유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현재 문혁이 제대로 담론화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신좌파와 포스트학과 그리고 프리드리크 제임슨, 아리프달릭 등 서구좌파가 연맹을 형성하여 문혁 비판과 성찰을 오리엔탈리즘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²⁷⁾ 더구나 강 건너 불구경만 해도 되는 서구좌파는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권위주의를 가장 선망할만한 정신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²⁸⁾이 문혁을 직접 경험한 중국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서구좌파의 경우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관념적 반감과 자기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합된 형태로 중국에 투사되고, 거기다가 중국사회에 대해 판단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 양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중국에 대한 유토피아적 충동은 강화될 수 있다. 중국은 단순히 ‘그곳 there’으로 표시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 곳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경합하면서 살아 숨쉬는 생생하고 리얼한 현장이다.

4. 중국모델론과 근대극복의 딜레마

중국경제의 발전이 중국문화에 주목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을 직접적으로 중국모델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경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경제발전 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개혁개방 30년, 사회주의 30년, 중국 근현대 100년, 더 나아가 전통 중국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요구한다. 중국모델론이 왕후이가 말하듯이 중국의 경제성장은 신자유주의 자체만을 이용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할 수 있다.²⁹⁾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경제체제는 사실상 ‘반半통제, 반半시장’의 과도적 경제체제며 거기에는 새로운 시장경제 요소도 포함되지만 구舊명령경제의 요소가 들어 있고,³⁰⁾ 따라서 관재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점에서 데이비드 하비의 말을 좀 길게 인용해보면 중국은 ‘중국식’ 특성을 갖지만 틀림없이 신자유주의화와 계급권력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³¹⁾ 즉 중국식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로 규정될 수 있다. 중국은 점자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의 강화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만성적인 불균등한 사회가 되었다. 성장의 혜택은 주로 도시 주민들과 정부 및 당 간부들에게 돌아갔다. 어느 유명한 변

27) 郭建, 「當代左派文化理論中的文革幽靈」, 『二十一世紀』 2006년2월호, 總第九十三期

28) 耿占春, 「學術：中國製造」, 『二十一世紀』 2010 12월호 총제122기, 105쪽

29) 汪暉(村田雄二郎 외 옮김), 『思想空間としての現代中國』, 岩波書店, 2006, 서문 참조

30) 吳敬璉, 「前言：‘中國模式’, 還是過渡體制」, 何迪·魯利玲 편, 『反思“中國模式”』,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4-5쪽

31) 데이비드 하비(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 한울, 2007, 185쪽

호사는 혁명 이전의 공산당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저항하는 싸움에서 노동자들의 편에 섰지만 오늘날에는 투쟁적 냉혈 자본가들과 협력하고 있음을 봤다고 했다. 당과 경영 엘리트간의 통합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노동자와 당 조식은 긴장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이의 말처럼 “개혁의 역사에 대해 상세한 고찰이 있어야 하고 도대체 어떤 원인이 위대한 성취를 낳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이 중국개혁 중의 사회격차를 낳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고찰해야 한다.”³³⁾ 중국모델론은 궁극적으로 중국은 어떤 국가이고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하는 규범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간양은 주장한다. “중국의 길(중국도로)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중화문명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현대화’라는 이 용어는 이제 모두 던져버려도 된다.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화문명 그 자체를 새롭게 하는 문제다.”³⁴⁾ 좀 투박한 형식이지만 간양은 중국모델론을 유학과 중국(인)의 아이덴티티 형성의 문제로 보고 있고, 이 점이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이 만들어낸 어떤 특수한 정치, 경제적 패턴의 범주 내에서 설명하려는 신좌파의 다른 지식인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양이 말한 대로 ‘현대화’를 던져버려도 되고, 이제 서양에 대응하여 단순히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근대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아리프딜릭이 지적한 것처럼 ‘서양’이 이미 뺄 수 없는 동아시아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들이 새로운 문화적 가면 아래서 사회적 불의와 억압을 계속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이다.³⁵⁾ 이는 문명비평이 사회비평과 분리될 때 국가를 포함한 중국 사회 내부에 대한 비판을 소실해버리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모델론 논의가 질적 전화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베이징올림픽 이후다. 간양은 이를 계기로 좌우를 막론하고 하나의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중국 지식인들이 서양모델, 미국모델에 대한 미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간양이 말하는 2차 사상해방의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서방과 미국의 모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왕후이와 간양 등이 제출한 사고방식은 개요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은 성찰적인 입장이다. 기존의 유행하는 해석에 대해 ‘재문제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현대성’을 ‘서양화’의 보편서사로부터 분리시켜 30년 동안의 중국의 굴기의 ‘형성역량’에 대해 다시 ‘중국요소’(수천 년의 중국고대 전통, 백년 사이의 신문화운동과 중국혁명전통, 및 60년 동안의 중국사회주의 국가전통)를 다시 발견하려 함으로써 미래의 중국 도로 및 세계문명의 의의에 대한 새로운 상상공간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중국굴기에 중국요소가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같은 근대화의 결과에서 적어도 겉모습에서는 해당 국가단위의 문화적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제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경제성장의 요인과 과정이 기존의 서구 중심주의의 해체라는 방향과 얼마만큼 연결될 수 있느냐이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이 중국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형성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32) E. Cody, "Workers in China Shed Passivity", 데이비드 하비(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 한울, 2007, 184쪽에서 재인용

33) 汪暉, 「爲未來而辨論」, 『21世紀經濟報道』 2008년 12월 20일

34) 甘陽, 「中國道路還是中國模式」, 『文化縱橫』 2011. 10, 83쪽.

35) Arif Dirlik,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0, 111쪽

36) 劉擎, 「中國崛起與文化自主：一個」反思性的辨析」, 『思想』(臺灣) 2009년 10월, 第13期, 19쪽

사실 중국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데는 근거가 있다. 주지하듯 중국은 서양의 어떤 모델로도 설명이 되지 않으며 기존의 중국이 경험한 사회주의 방식 그대로 답습해서도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중국이 새로운 발전경로를 가진 모델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조건이다. 중국의 규모에서 기존의 자본주의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독점과 착취가 강화된다면 중국 내외적으로 양극화와 더불어 예상되는 생태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훨씬 초월한 어마어마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글로벌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모델은 서구중심주의를 의식하기 이전에 중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나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이면서도 성찰적 접근을 요청한다.

그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충족된다고 해도 중국모델론 자체가 갖는 내적 정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적극적 의미를 갖기 힘들며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의 대안을 찾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 대안이 진정한 대안이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문제에 대해 대안적일 수 있어야 한다. 내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글로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 다수 인민의 행복, 인권을 방기하고서 외부의 대안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를 감안하여 필자는 대안적 현대성 개념으로 월러스틴이 제시한 ‘보편적 보편주의’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제 중국모델은 경제적 이익관계 즉 하드파워에서 중국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 즉 소프트 파워의 구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유교적 전통, 또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전통만을 고집해서는 근대를 극복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창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부정의 부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방법적으로는 우선 “자신임을 거부하고 동시에 자기 이외의 것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행인 것은 중국의 주류 지식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내부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껀잔춘(耿占春)은 “최근 중국에서 제시되는 현대성 개념은 마오 시대에 겪었던 여러 문제들을 누락시키면서, 사회의 진실한 경험과 기억을 무시하면서 집권당의 학술찬가가 되었다”³⁷⁾고 혹평했다. 또 원티에전(溫鐵軍)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중국의 주류지식인의 두 부류 중 하나는 자본주의화를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측은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정반대이지만 친자본적 입장이라는 데서는 동일하다. 전자는 해외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후자는 국가주도의 국유기업의 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³⁸⁾ 이 말은 결국 자유주의파, 신좌파 공히 자본의 확장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중국의 주류 지식인들은 서구중심주의의 대안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추구하는 것은 성장주의적 근대화론인 것이다. 이 두 지적은 ‘과거청산’과 현실분석의 방향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주류 지식인이 말하는 대안에서 국가 주도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어떤 지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현재 중국에서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서방문명과 더불어 ‘보편가치’의 초월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정작 초월성에는 관심이 없고 物化에만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초월은 더 큰 야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 현대성(另類現代性)에 대한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⁹⁾ 사실 문혁은 복합적 차원의 연구가

37) 耿占春, 「學術：中國製造」, 『二十一世紀』 2010 12월호 총제122기, 103쪽

38) 溫鐵軍(김진공 옮김), 『100년의 급진』, 돌베개, 2013

되어야겠지만, ‘다른 근대’가 가능하다는 가설 속에서 전사회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가해졌던 대표적 사례이다. “마오쩌둥의 본원적 축적의 또 다른 양식이 구체화된 것”⁴⁰⁾에 불과했던 것일 수도 있다.

전체 GDP로 보면 중국의 굴기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 대단한 만큼 사회문제 또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보다도 중국이 기존의 자본주의국가보다 더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2014 중국 민생 발전 보고서’(베이징대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를 통해 발표되었다. “상위 1%가 중국 전체 자산의 1/3을 차지하고, 하위 25%가 전체 자산의 1%를 차지한다.”⁴¹⁾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의 93%가 ‘전혀 의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공공안전 즉 통제를 위한 재정 지출이 국방비를 초월했다는 2012년 청화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도 있었다. 이 보고서들은 중국사회가 정치의 근간이 되는 인민과 국가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사회라는 것을 넘어 국가와 인민 사이가 당국의 감시와 관리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이른바 국가가 주도하고 지식인이 참여하여 출현한 중국모델과 위의 통계를 어떻게 매치시켜야 할지 난감하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보고서를 접하고도 서구의 대안을 운위할 수 있을까.

5. 대안근대의 ‘회의적’ 탐색을 위하여

이른바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되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적 헤게모니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 연장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를 토대로 중국 지식계는 근현대 100년의 염원이었던 ‘부강중국’을 넘어 ‘문명중국’ 구상에 분주하다. 그런데 문명중국 구상을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조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진보에 대한 믿음, 과학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합리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가는 매우 우울한 시기, 즉 근대성의 꿈에 종지부를 찍은 후에 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잘 해내려면 각자의 정당성에 대한 얼마간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전지구적 보편주의에 대해 지속적인 탐색을 해나가야 한다.⁴²⁾ 그리고 그 탐색은 문명론에 대한 회의와 경계, 자기본위적 윤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회의와 경계와 함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그 경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국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리얼한 현실 인식이다.⁴³⁾ 현실에 대한 리얼한 인식을 통해 이상이 문명론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또 오리엔탈리즘으로 기우는 것을 차단해준다.

서구와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의 역사를 경험한 바 있는 중국인은 이제 경제성장으로 대단한

39) 劉擎, 「現代化論題的重申」, <http://www.aisixiang.com/data/59093.html>(검색일 2014. 12. 17) 文章来源: 《知识分子论丛》

40) 2012년에 실상이 알려진 충칭사건에서도 사실상 거기에 이데올로기로 기꺼이 참여했던 지식인들 다수가 대안근대에 대한 ‘회의적’ 탐색보다는 순쉬운 타협을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41) 불평등과 대규모 빈곤은 문명이 진보할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헨리 조지는 1920년대에 이미 간파했다. 문명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불평등과 대규모의 빈곤이라는 것이다. 헨리 조지(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이러한 통찰은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결론과도 통한다. 이로 보면 불평등의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를 경험했음에도 빈부격차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42) 이매뉴얼 월러스틴(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창비, 2008, 58쪽

43) 다케우치가 1960년대에 문명론으로 기울어진 것은 바로 근대초기에 대한 의심 없이 무서울 정도의 집착이 초래한 결과였다.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일단 다양한 논의를 분출시키는 양성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굴기로 얻은 자신감은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적 분석력과 윤리적 감수성을 약화시키는 악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신좌파와 신유가를 중심으로 한 중국중심담론은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자본주의의 문제점의 핵심을 비껴나가 중국모델론과 복수의 근대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근대 서구중심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방관일 뿐 아니라 여기에서 정작 관심은 강약의 자리교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1세기의 ‘중국의 세기’를 예견한 동서양의 다수의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모습은 이미 서양에서 18세기에 식민주의의 이론적 기틀 형성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보여준 바로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어떤 면에서 서구좌파와 중국의 신좌파 사이에는 이미 중국공산당의 암묵적인 지지 아래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가정하면 중국관련 학문이 이미 경제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이데올로기를 제조하는 과정에 진입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서구중심주의가 과학기술에 힘입어 식민지 개척과정에서 세계의 위계질서를 확립했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유럽의 지배적 위치를 정당화하는 담론체계로 형성된 것처럼 지금 목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학문의 체계가 형성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중국은 경제의 부상과 그 규모나 잠재력만으로도 압도적이다. 중국이 경제적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중국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자아카데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다수의 지식인들에게 압도적 규모의 경제성공은 그 자체로 이미 중국을 자유로운 사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 다수가 서구중심주의 강화에 동원된 경우를 상상해보면 대동소이한 경우이다.

이들이 대안으로 삼고 있는 주 내용은 중국 문명론과 중국의 공산주의 경험이고 많은 경우 전자 안에 후자가 내포되어 담론화된다. 이것은 이들 양쪽 모두에게 중국의 현대사에서의 서구의 대안으로 실패했던 중국 현실사회주의(주로 문혁)에 대해 해체를 통해 복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중국의 현실사회와 중국문명 그리고 공산주의의 경험을 민주라는 절차와 가치를 가지고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 구성에서도 긴장과 균형은 찾기 힘들다. 인문학 자체가 대중에게 힐링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과 똑같이 자기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진보진영에도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질수록 대안근대에 대한 집착과 원망(願望)은 강해진다. 이럴 때 ‘달콤한 대안근대’는 똑같이 힐링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집착과 원망은 좌파-오리엔탈리즘이건 셀프좌파-오리엔탈리즘이건 이 모두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문명을 둘러싼 주류적 분위기에 대한 지식인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지배적인 규범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공적 삶의 질서와 연속성을 제공하는 것이 현대지식인 - 물론 지식인은 이미 자본과 국가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지만 - 의 역할에 종속이라 한다면 여기서 지배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⁴⁴⁾ 지식인의 역할은 동서를 불문하고 국가를 비롯한 기존의 주류적 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중국을 지나치게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서 우리는 중국을 보편적 사유의 대상에 올려놓을 수 없다. 중국이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는 그 무엇이라 해도 인문학적으로는 그 역설성에 주목해야 하고 중국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하는 데 머뭇거릴 수 없다.

44) 에드워드 사이드(최유준 옮김), 『지식인의 표상』, 마티, 2012, 51쪽 참조

사유의 문제라면 중국의 지식인들은 노신의 근대성에 대한 복합적 고민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안근대를 탐색하는 인문학자라면 루쉰의 더블바인드(double-bind), 즉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나 동시에 또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⁴⁵⁾ 이 딜레마적인 상황 속에서 발버둥치는 형상(소위 掙扎)으로서의 중국 이미지에 대해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에게 바깥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掙扎’만이 우리의 현존 방식이다.

45) 菅孝行, 「抵抗のアジアは可能か」, 鶴見俊輔/加加美光行 編, 『無根のナショナリズムを超えてー竹内好を再考する』, 日本評論社, 2007, 67쪽